

역사 자체가 된 무명 또는 익명

성석제 작가 5년 만의 신작 '왕은 안녕하시다' 출간

"왕, 왕이라는 자리, 왕이 가지는 힘은 누구든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 왕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암중에 칼날이, 화살이, 총탄이, 명분이며 도리라는 말 폭탄이 왕을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성석제(59) 장편소설 '왕은 안녕하시다' (전2권)이 나왔다. '투명인간' 이후 5년 만의 신작이다.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서 전반부를 연재한 뒤 후반부를 새로 썼다. 전체를 대폭 개고, 원고지 3000매에 이른 대작 역사소설이다.

주인공 '성형'은 한양에서 제일가는 기생방 주인인 할머니 덕에 놀고먹는다. 우연히 만난 비범한 종모의 꼬마와 의형제를 맺는다. 알고 보니 꼬마는 장차 대위를 이을 세자(숙종)였다. 얼마 뒤 그가 14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성형은 왕을 지키는 왕의 최측근이 된다. 궁궐 안팎을 오가며 각계각층의 사람살이를 경험하고, 왕을 둘러싼 여러 인물들을 관찰하며 왕의 안위를 위해 동분서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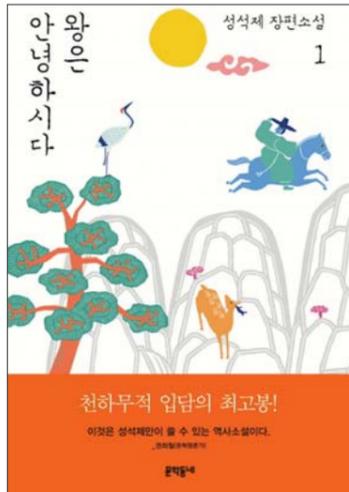
성형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권력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국면을 목도하거나 은밀히 그에 개입하며, 할머니의 배경과 인맥을 바탕으로 장사 수완을 발휘해 왕실의 재산을 불리는 데 힘쓰기도 한다. 진기한 칼을 얻어 위기에 처한 왕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정

나라의 무에 고수와 대결을 벌이는 활약도 펼친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쓴 김만중을 행님으로 모시며 가까이하기도 하고, 강직한 선비로 이름높은 박태보를 지켜보며 호모하기도 하고, 훗날 희빈 장씨가 될 장옥정에 연심을 품기도 한다.

왕과 왕을 둘러싼 세력들 사이의 갈등과 암투, 대립과 이합집산이 거듭된다. 성형과 갖가지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의 운명도 권력의 향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한다. 왕은 어느덧 자신의 자리를 위해 슬픈 목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성형과 왕의 관계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명분과 도리, 왕의 말 한마디와 신하와 유생의 상소 한 장이 엄청난 위력을 지닌 무기가 되어 진퇴와 생사를 가른다.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민심을 움직이고 어느새 실체가 되어 드러나는 과정이 신랄하게 그려진다. 속적을 깔내 죽음으로 불고야 마는 잔인한 권력의 맨얼굴과, 그럼에도 대의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이들의 결기가 선명하게 맞부딪힌다.

성 작가는 "역사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꾸거나 역사 그 자체가 된 무명 또는 익명의 존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써보려고 한 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한다.

"악습을 무너뜨리고 불합리한 체제에 균열을 낸 그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스스로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후손이 바로 현재의 우리 자신이다. 결국 이 소설은 나, 또는 우리 조상에 관한 이야기이다"고 말했다.

각권 1만4500원, 문학동네 /뉴시스

어린이와 성인작가의 시각적 대조

우리글맛으로 살려낸 톨스토이 자전소설 '유년시절' 출간

러시아 문호 레프 톨스토이(1828~1910)의 소설 '유년시절'이 번역·출간됐다. 톨스토이가 깡깡에서 군 생활을 하며 발표한 첫 작품이다.

이후 출간한 '소년시절', '청년시절'과 함께 자전소설 3부작으로 불린다.

러시아 고전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톨스토이 이전 어떤 작가도 이런 방식으로 문단에 등장한 적이 없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유년시절을 풀어냈다. 당시 이러한 문학적 시도는 혁신이었다. 훗날 비평가들은 '영혼의 변증법'이라고 평했다. 소설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어린 니콜렌카 이르제니예프와 자신의 유년시절을 회상하는 성인 이르제니예프다. 어린이와 성인작가의 시각적인 대조가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나타낸다.

두 주인공의 시각 차를 통해 '유년시절'의 사건들은 톨스토이의 동시대인들 삶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톨스토이 소설은 러시아 문화의 일부가 됐다. 혁신적이면서 러시아 문화의 모든 것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훌륭하게 만들어진 주인공의 초상, 섬세한 부분까지 묘사된 풍경, 시골 저택의 예스러운 분위기와 삶의 모습에 대한 기술 등이 그렇다.

윤진이 전제진 교수(중앙대 국제대학원)는 "이미 국내에 번역이 되어있는 '유년시절'을 재번역하면서, 나만의 번역 색깔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무게가 컸었다"고 한다. "번역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5가지다. '유년시절'을 재해석하기, 톨스토이의 언어를 읽어내고 살리기, '유년시절'의 시적 미학을 표현하기, 톨스토이의 '영혼의 변증법'을 한국어로 글맛을 살리며 재현하기, 톨스토이와 한국 독자, 러시아와 한국 문화 사이의 소통의 미학 찾기다"

또 "번역은 이미 손을 떠났지만 아직도 완성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21세기의 한국"이라는 시공간 문화 속에서 '유년시절'을 제대로 재현해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독자들의 상상 속에서 '유년시절'이 완성되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68쪽, 1만2800원, 뿌쉬킨하우스 /뉴시스

전북문화재단, MICE 팸투어 운영... '여행 체험 1번지 전북 알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시간 여행권역 MICE 팸투어'를 공동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MICE(미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 trip)·컨벤션(Convention)·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앞글자를 딴 용·복합 산업을 말한다.

이번 팸투어는 '문화로, 예술로 떠나는 MICE 여행'을 주제로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MICE 관련 기획자, 교수, 관광 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고창과 부안의 주요 MICE 대상 지역을 돌아보게 된다.

첫날에는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시간 여행권역 MICE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어 부안과 고창의 주요 관광지 및 MICE 대상 지역 견학, 전통시장 맛 투어 및 약선을 식 체험, 지역 기반 공연예술관람과 인센티브형 힐링체험 등도 진행된다.

전북문화재단은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중 제7권역에 속해 있는 전북 지역 MICE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류의 장과 전북을 대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MICE 팸투어'를 공동 추진한다.

하는 관광 콘텐츠 발굴로 '여행 체험 1번지 전북'을 알리기 위해 이번 팸투어를 마련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거점 특화 관광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신평섭 지사장과 전북문화재단 한민규 팀장은 "전북 관광과

MICE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분야로 구성된 팸투어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며 "전북 관광의 사업 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문화관광팀 전화(063-230-7462)로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에 '마당창극' 전용 야외공연장 생긴다

전주시는 대표 공연 브랜드인 '전주 마당창극' 육성을 위해 전용 야외공연장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주한옥마을을 지속가능한 명품관광지로 발전시키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주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국가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이달 중 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비 12억 등 총 30억원을 들여 한벽문화관 야외마당에 전주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한벽문화관 야외마당의 기능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공연장을 지을 방침이다. 공연장은 약 400석 정도의 관람석을 갖춘 공연장과 스탠드 하부의 무대 및 공연 부대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별도의 대기실과 분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마당창극 배우 등 출연진이 더욱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연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국가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 전주 마당창극 야외공연장이 완공되면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욱 품격 높은 공연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